

01 교회소식

두근두근 콩닥콩닥 설레는 하계수련회

올해는 또 어떤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지 기대된다.

02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범사에 형통함으로 축복하신다.

03 간증

내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의 사랑

주일성수로 축복받았다는 정민재 자매와 성경의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싶다는 벨기에 파브리스 플랑드르 성도 간증.

04 만민 하계수련회

잊을 수 없는 수련회 기사(奇事)들

만민 하계수련회 시 나타난 놀라운 기사의 현장을 목격한 성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본다.

만민뉴스

제643호 2014년 7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사랑의 표적이 넘쳐나는 만민 하계수련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교육, 체육대회, 감동적인 캠프파이어



‘2014 만민 하계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성도들은 작년에 이어 대대교구별 대항 체육대회 준비로 한창이다.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교육과 캠프파이어 등 알찬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날씨와 더불어 기사(奇事)의 향연이다. 매년 8월 초 전국 곳곳에서는 찜통 더위로 고생하지만 만민 하계수련회장은 시원한 바람과 최적의 날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왔다.

특히 지난해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재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있었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다. ‘2013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린 8월 5일 저녁 7시 30분경, 전국

및 해외 22개국에서 모인 수많은 성도가 첫째 날 교육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포하기 전부터 하늘에 시커먼 먹장구름이 가득하더니 이내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특송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강사 이재록 목사를 소개할 때는 점차 굵은 빗줄기로 변해 성도들의 옷을 적셨다. 평소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은 요동함이 없었고, 이 목사는 교육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를 머금은 구름들이 즉시 물러갈지어다. 비야 멎으라. 빛이여 임하라.”고 명했다(사진 증거자료).

얼마 후 먹장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그쳤으며, 말갭게 열린 하늘 사이로 별들이 나타났다. 아울러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젖은 옷이 곧 마르고 최상의 조건에서 밤늦게까

지 교육이 진행됐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에는 ‘목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랑과 신뢰가 새겨졌다.

비를 오게 하는 수직으로 발달한 적란운의 두께는 13km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두터운 구름층이 순간에 흩어져 비를 그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진 사건보다 더 큰 역사라 할 수 있다.

홍해는 밤새 동풍이 불어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후에는 바로 합쳐졌지만 이날 하늘을 덮은 비구름은 기도한 즉시 물러가 다음 날 체육대회를 마칠 때까지 합쳐지지 않고 맑은 날씨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

다(사진 체육대회 개회식).

또한 2006년 이후 만민 하계수련회마다 어김없이 수많은 잠자리 떼가 하늘에서 내려와 성도들의 손에는 물론, 온몸에 살포시 앉을 뿐 아니라 모기 등 해충까지 박멸해 주고 있다. 잠자리의 겹눈은 위아래 앞뒤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최고 37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잠자리 떼는 하나님 역사로 영의 공간을 통해 쏟아져 내려온 것이기에 성도들에게 친근히 다가와 행복하게 해 준다.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1982년 교회 개척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4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5)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적 믿음을 소유한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크게 이뤄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며 충성한다 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축복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육신이란 몸과 결합된 죄성으로 아직 행위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비진리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속성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스승, 친구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배운다 해도 진리대로 가르침 받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비진리를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운 자가 오 리를 가자고 하면 십 리를 동행해 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겹 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하시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의는 다릅니다. 원수는 갚아야 하며 악은 끝까지 대항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옳다고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의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영적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위배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온전히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2.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고후 10:5).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출 15:26)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살전 5:22)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미움,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이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악을 발견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상대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행 22:25) 베냐민 지파의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롬 11:1), 당대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행 22:3). 철저한 유대교도로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지요.

그러나 다메섹, 즉 지금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체포하고자 가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지식과 교양, 사회적 지위를 모두 버리고 주를 좇았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고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우쳤기에 사도 바울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

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자기의 유익을 좇으므로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로 가득차게 되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께 복종한 믿음의 선진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는 했으나 화평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상대를 찌르는 자기의 의가 있었기에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고했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가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연단을 통해 상대를 찌르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 뜻을 좇았기에 능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각종 핍박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었지요. 이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린 것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범사에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6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수요찬양예배	11:00 PM
금요찬양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온전한 주일성수가 안겨 준 축복, 감사해요”

2007년 대학 졸업 후, 저는 고향 거제도에서 학원 영어강사와 과외지도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여가시간 없이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3년 뒤부터는 과외지도만 했지요. 수입은 넉넉했지만 안정된 직업이 아니고 평소 하고 싶었던 여행이나 통역대학원 공부를 못하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1년 9월 25일부터 고모 정순옥 권사님의 전도로 거제만민교회(담임 이승민 목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예배에 빠질 때도 있었고 과외 수업을 할 때도 있었지요. 2012년 2월, 거제만민교회 창립예배 강사로 오신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은 제게 주일성수를 잘 해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후 말씀에 순종해 주일에는 과외 수업을 하지 않았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있던 수업료가 비싼 고등학생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수입이 예전과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제도에는 고등학생 대상 학원이 많지 않아 과외시장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 과외 수업을 많이 하지요.

그러던 2013년 2월 27일 밤 12시경,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형차를 몰던 음주 운전자가 제 소형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입니다. 상대편 운전자는 엉덩이뼈가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제 차는 폐차될 정도로 찌그러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벼운 무릎 타박상만 입었지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큰 교통사고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성수를 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에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예배 시간에 종종 지각을 했지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철저히 회개한 뒤에는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주일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또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과외 수업 외 시간에 최선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일터에 축복이 넘쳤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많은 학생이 찾아와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가 됐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미없는 일은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의 원칙을 재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큰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하고, 예문에 학생들의 이름을 활용해 집중도를 높이고 있지요.

또 성경상의 예화나 말씀을 활용해 학생들의 눈높이나 상황에 맞춰 가르치고, 정기적인 승급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선물을 준비해 성적과 상관없이 매우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주지요. 방학 중에는 기존 학생들의 수업을 두 배로 늘리되 수업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성적인 분야도 마음을 쓰니 점차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신뢰가 쌓였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날로 수입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반석에 서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민재 자매
(거제만민교회, 29세)

“유럽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브리스 플랑드르 성도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46세)

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많아 자살을 시도했지요. 그런데 스무 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한 후에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며 세상에 몰두해 살았지요. 저는 말씀에 갈급했고, 참된 교회와 목자를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벨기에 교회들도 세속적인 문화를 따르고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보기 힘듭니다. 문을 닫는 교회도 많으며 사회적으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 되고 동거, 성적 타락이 만연해 혼전순결이란 단어가 무색해졌습니다.

2011년 4월, 저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열린 ‘권능의 손수건 집회’(행 19:11~12)에 참석해 강사 노현숙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치료

의 역사를 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 선교사님을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는 만민중앙교회를 더 깊이 알게 됐지요. 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찾던 교회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찬양과 공연, 해외 연합대성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구나!’ 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1년 9월 18일, 에노만민교회(담임 노현숙 선교사)가 개척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친히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시는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됐지요.

저는 교회에서 회개와 통역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서울 본교회를 다녀온 후에는 더욱 성결에 대한 사모함이 커졌습니다. 이곳에서 만민뉴스를 전하며 전도에도 힘쓰고 있지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유럽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4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 07.20~07.26

0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16~20
- 마음을 다한 찬양
- 요한계시록 강해 21
- 사랑장 2~6
- 창세기 강해 113
- 능력
- 믿음의 분량 24~27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
- 마음발을 개간하자 1~5
- 우리 삶의 등불 18~19

02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8 (이수진 목사)
- 마음발을 개간하려면 (이미영 목사)
-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이미영 목사)
- 세상을 끊자 1/생명수 4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5~6 (이희선 목사)
- MIS강의 13/열재앙 4 (정구영 목사)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구희선 교육전도사)

03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4
- 옛날 옛적에 3~4
- 찬양 드려요 7~8
- 모두 드려요 11
- 몽도 토티몽도 토티 29
- 흥겨운 소리 7
- 항기 7~8
- English 8~9
- 아름다운 예배 4~6
- 뷰티풀 라이프 5
- 만민지킴이 6
- 플로리스트 8~9

04 해외성회 및 교육

- 에스토니아 연합대성회 1
- 회상 5
- 2013 기관장 교육 12~13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기사(奇事)가 넘쳐난 수련회,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역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순간에 멈추고, 먹장구름이 물러가며 태풍이 소멸되고, 구름의 이동과 출몰, 그리고 별의 이동 등 만민 하계수련회 시 하나님 권능으로 펼쳐진 놀라운 기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참임을 믿게 해 주었다. 지면 관계 상 몇 가지 사례만 성도들의 증언으로 추억해 본다.

쏟아지던 장대비가 일시에 멎어

▶ 1983년 8월, 교회 개척 이래 처음으로 학생, 청년 수련회가 열렸다. 그런데 출발 전날 수련회 장소인 인천 대부도를 포함한 서울, 경기 일원에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 수련회 당일 새벽까지도 요란스런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역수 같은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퍼붓는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에 부딪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록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오던 비도 멈출 것을 100% 믿었습니다. 수련회 참석자 모두 같은 마음이었지요.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합심기도를 마친 뒤, 성전 밖으로 나가 땅을 내딛는 순간 장대비가 새벽 안개처럼 흩날리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뛰고 돌며 환호하고 기뻐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홍명일 장로 (교회 시설관리국)

태풍도 거센 파도도 막지 못한 수련회

▶ 1986년 7월, 울릉도에서 빛과소금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상경하는 날이었다. 그날 일기 예보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돼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몰아쳤다. 회원들이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재록 전도사는 어렵사리 작은 오징어잡이 배를 구했다. 짐채만 한 파도가 덮쳐왔지만 이들이 탄 배는 울릉도 서면 남양 선착장에서 도동항까지 거센 파도 속을 뚫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 “두렵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수련회 기간 중 울릉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재록 전도사님을 강사로 열린 부흥성회 때 거의 시체와 같던 여자 분이 기도를 받고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영적 믿음이 생겼고, 수련회 내내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집에만 한 파도가 덮쳐왔지만 저희들은 배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찬양하며 울동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작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지금은 교회 곳곳에서 기초석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과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황규란 전도사 (중학교구 교구장)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고

▶ 1999년 8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청운수련원에서 열린 남녀장년 하계수련회(2-1, 2-3 남선교회 주최) 때의 일이다.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도 참석한 가운데 온 가족이 행복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진행본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도착했더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으며 뜨거운 태양만이 작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도착한 당회장님께서 행사와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갑자기 동서남북에서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빼곡한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 주셨기에 성도들은 그늘진 운동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행복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태 장로 (2장로회 총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 2001년 8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학선교회 수련회 때의 일이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밤, 주변에서는 천둥 번개가 쳐서 별을 볼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별보기 행사를 준비하고...

▶▶ “별보기 행사가 있는데 밤하늘에는 먹장구름이 가득해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던지 주변이 보이지 않고 옆사람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신 뒤 하늘에 별이 하나 둘씩 보이더니 우리가 모여 있는 상공에만 무수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대학부 회원 모두 감격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김소재 집사 (가나안선교회 부회장)

이 밖에도 1987년 7월 학생주일학교 수련회가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있었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가 내렸으나 수련회장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1994년 8월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남녀장년 수련회에서는 몰려오던 먹장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방향을 바꾸어 사라졌다. 2000년 8월 전남 무안만민교회에서 가진 선교회별 수련회 때에는 이동하는 별이 비디오카메라에 잡혀 많은 사람이 목도할 수 있었다.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북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1070-3601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6650-2046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전원맨션 2동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합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